

스포츠 종합

8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KPGA 패밀리 골프 챌린지

대회 안내

대회 일시 2021년 12월 23일(수)
 대회 장소 이븐데일 골프 노인포트 (충북 청주)
 대회 방식 18홀 포설 (신화관으로 형식으로 급게 시상)
 참가 대상 선수 40명(주니어 포함)
 참가 인원 총 144명 / 12팀 / 가족 당 2인 출전

접수 기간 2021년 12월 21일(화) ~ 2021년 12월 27일(일)

참가비 1인 22만원
 (그라운드 / 카트비 / 조식 / 액식 포함)

시상 단체상 우승, 준우승
 개인상 최다득점, 최다홀인
 특별상 팀 1위(관공), 팀 골키퍼, 팀 매달리스트
 ※ 본 시상금 주지 후 사정에 따라 주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E-Mail 접수 (선착순 마감)
 1. 대회 홈페이지(www.kpga.co.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2. 참가신청서 작성 후, 가족당 접수 및 대회 당일 출전 시와 함께 패밀리권 접수
 (매달리스트 증명서는 2차 인증 내역 후, 이 증명서는 대회 4시간 전 PCR 검사 후 확인서 제출)

매달리스트 증명서 발급 방법

전차 증명장을 증명서

스포츠본에 COOV(무인)를 설치하고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전차 증명서 발급)

※ 접수 및 문의: kpgafamilygolf@sportsweb.co.kr
 ※ 대회 운영 사무국: 070-4552-6539

아마추어 골프가족 모여라!

KPGA, 29일 이븐데일서 ‘패밀리 골프 챌린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9일 충북 충주 소재 이븐데일 골프앤리조트에서 순수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2021 KPGA 패밀리 골프 챌린지’를 개최한다.

‘2021 KPGA 패밀리 골프 챌린지’는 다양한 연령대 및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건전한 가족형 생활 스포츠인 골프를 통해 가족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골프 대화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녀 구분없이 가족 당 2인이 한 팀으로 경기하고 1타씩 번갈아 치는 18홀 포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44명(72팀)이 출전해 승부를 겨루며 신페리오 방식으로 성적 집계 후 우승과 준우승 팀에게 시상을 한다.

팀 니어리스트, 팀 롱기스트, 팀 매달리스트, 행운상 등 특별상에 대해 시상하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가족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7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북극 2021년 12월 27일 이븐데일

파주CC에서 북극곰 골프를 즐기자

날 기 2021년 12월 27일(일)
 대회시간 07:00~12:07
 참가비 팀당 49만원(4인2팀+팀장비+팀기+팀비)
 인 기 팀당 2인~4인

비 해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진 기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단체 골프 대회 개최

엄동설한에 반팔·반바지로 라운딩? 파주CC, 27일 북극곰 이벤트 개최

참가팀에 컬러볼·아이스커피 제공 ‘이색골프’

파주컨트리클럽(파주CC)이 27일 ‘2021 북극곰 이벤트’를 개최한다.

2018년 시작돼 매해 연말 진행하는 북극곰 이벤트는 파주CC의 연례 이색 스포츠 행사로 이벤트 참가자들이 한겨울 추위를 뚫고 반팔과 반바지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클럽하우스에 입장해 인증샷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주CC는 이벤트 참가비 일부 금액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27일 1부(오전 7시~오후 12시7분) 동안 진행되며, 참여팀에게는 팀당 컬러볼 1박스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또 반팔, 반바지를 입고 클럽하우스를 입장한 참가자에게는 ‘아이스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 예약으로만 가능하며, 팀별 참가비는 그린피와 카트비를 포함해 4인 기준 49만 원이다.

김도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주전 세터 염혜선 이탈한 KGC인삼공사의 고민

‘범실 5개’ 하효림, 부담감을 극복하라!

〈백업 세터〉

세터 흔들리니 주포 엘레나 힘 못써
 이영택 감독 “부담 내려놓도록 대화”
 실업팀서 세터 추가 영입 추진 나서

KGC인삼공사 주전 세터 염혜선 (30)이 손가락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하면서 하효림(23)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인삼공사는 2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흥국생명에게 세트스코어 0-3(20-25 14-25 13-25)으로 완패했다. 이번 시즌 개막 후 가장 무기력한 패배였다.

세터 염혜선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12일 페퍼저축은행과 원정경기 이후 통증을 느낀 그녀는 흥국생명전 하루 전인 20일 왼손 중지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코트 복귀까지는 최소 6주 넘게 결장 전망이다.

염혜선을 대신해 흥국생명전에 선발 출전한 백업 세터 하효림의 활약은 아쉬웠다. 올 시즌 범실이 없었던 그녀는 이날 경기에서만 양 팀 통틀어 최다인 5개의 범실을 범했다. 세터 포지션이 불안해지자 공격도 잘 풀리지 않았다. 외국인선수 엘레나가 8점(공격성공률 18.8%), 토종 에이스 이소영이 7점(공격성공률 31.6%)에 그치는 등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전무했다.



당분간 세터 포지션의 제1옵션으로 나서야 할 하효림으로선 부담감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경기 후 이영택 인삼공사 감독은 “부담감을 못 이겨낸 것 같다. 하효림으로 경기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염혜선의 복귀가 가능한 5라운드 초반까지 하효림 홀로 버텨내는 것은 무리다. 최근 부진했지만, 염혜선은 이번 시즌 세트당 세트성공 부문에서 김다인(현대건설·11.14%)에 이어 전체 2위(10.29%)를 달릴 정도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

하효림이 자신감을 되찾고 경기력을 회복한다고 해도 세터진 보강은 필수적이다. 이에 인삼공사는 현재 실업팀에서 세터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팀에 몸담은 바 있는 대구시청 김혜원, 수원시청 이솔아 등이 영입 후보군에 있다. 구단 관계자는 22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선수 영입이 마무리될 것이다. 24일 GS칼텍스전은 힘들 수 있겠지만, 28일 도로공사와 경기 전에는 보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인삼공사 하효림(2번)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왼손 중지 골절로 수술을 받은 주전 세터 염혜선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선발 세터로 출전한 21일 흥국생명전에선 범실을 5개나 범하며 적잖은 부담감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KOVO

KB스타즈 16승-하나원큐 2승 ‘극과 극’

WKBL 전반기 결산

KB, 2위와 4.5게임차 선두 독주
 꼴찌 하나원큐 리더 부재 시달려
 디펜딩챔프 삼성생명도 4위 부진

전반기를 마친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의 판도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선두 청주 KB스타즈(16승1패)와 최하위(6위) 부진 하나원큐(2승14패)의 격차는 무려 13.5경기에 이른다.

6개 구단은 21일부터 29일까지 올스타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스타전이 무산됨에 따라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며 후반기를 준비 중이다. 극명하게 갈렸던 판도가 후반기에는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KB스타즈는 팀 득점(경기당 80점), 리바운드(43.6개), 어시스트(20.9개), 3점슛 성공률(36.6%) 부문에서 모두 선두에 올라있다. 개인 득점(22.1점)과 리바운드(14.59개) 1위를 질주 중인 ‘국보 센터’ 박지수가 골밑을 지키고, 자유계약선수(FA)로 합류한 강이슬이 득점 3위(17.18점)와 3점슛 1위

(52개)로 외곽을 책임지면서 전력이 한층 탄탄해졌다. 2년차 가드 허예은, 부상을 털고 복귀한 염윤아, 공수결장의 포워드 김민정 등 베스트5의 조합도 최강으로 평가받기에 손색없다.

2위 아산 우리은행(11승5패)과 3위 인천 신한은행(10승7패)도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시즌 초반 3승3패로 부진했던 우리은행은 이후 10경기에선 KB스타즈에 유일한 패배를 안기는 등 8승2패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구난단 감독대행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신한은행도 6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이자 득점 2위(20.43점)에 빛나는 김단비를 앞세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디펜딩 챔피언 용인 삼성생명(7승10패)은 4위로 다소 추졌다. 올 시즌에 앞서 김한별(35)을 부산 BNK 썬으로 트레이드

한 데 따른 전력약화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베테랑 센터 배혜윤을 중심으로 윤예빈, 강유림 등 젊은 피들이 분전해 덕분에 플레이오프(PO) 진출의 마지노선을 사수했다. 5위 BNK(4승13패)는 12월 7경기에서 3승4패로 선전하는 등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어 후반기에는 삼성생명과 치열한 4위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하나원큐의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강이슬이 FA로 떠난 데다, 이적생 포워드 구슬은 2경기만 치르고는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다. 신지현(16.31점)과 양인영(13.94점)이 힘을 내고 있지만, 베테랑 고아라마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한 탓에 리더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극적인 반동을 노리기보다는 하루빨리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WFSO 지부장들 “격투기 대중화 우리가 이끈다”

(세계격투스포츠협회)

타 종목서 종합격투기 체육관 전향
 로드FC와 협업해 지도자 능력 갖춰

세계격투스포츠협회(WFSO) 지부장들이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종합격투기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2014년 6월 출범한 WFSO는 로드FC와 함께 종합격투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일선 체육관에서 대중에게 종합격투기를 전파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다.

선수와 지도자 생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지닌 선수여도 체육관 운영이란 현실과 마주하면 여러 낯선 문제들을 겪곤 한다. 그렇기에 지도자생활 교육이 필수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고, 종합격투기도 올바르게 대중화될 수 있다.

WFSO 지부장들은 지도자생활 교육이

잘 이뤄진 모범사례다. 로드집 군산 김금천 지부장, 인천 정도관 김성태 지부장을 필두로 총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금천 상임지부장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각복성에서 종합격투기로 전향해 안정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정도관 김성태 상임지부장과 여수 동인체육관 이창섭 지부장, 원주 로드집 배가 이상균 지부장, 강진 중앙 무에스쿨 김민철 지부장, 원주 로드집 혁신점 박재성 지부장은 합기도에서 종합격투기로 성공적으로 전향했다. 안양 육타곤 MMA 문재훈 관장은 태권도에서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사례다. 이들은 WFSO 지도자 교육에 꾸준히 참석해 종목 전향 후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로드FC 김동욱 과장은 “WFSO는 로드FC와 함께 협업해 관장님들이 성공적으로 전향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타 종목 관장님들이 로드FC 코치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김금천 상임지부장
(전북 군산)

김성태 상임지부장
(인천)

권민석 지부장
(서울)

곽태민 지부장
(성남 분당)

김재걸 지부장
(대전)

김태인 지부장
(경남 김해)

김정희 지부장
(강원 동해)

이상균 지부장
(강원 원주 김)

문재훈 지부장
(경기 안양)

박준용 지부장
(경기 고양)

배동현 지부장
(서울)

김옥영 지부장
(경기 평택)

손진로 지부장
(경기 평택)

서보국 지부장
(대구)

이창섭 지부장
(전남 여수)

박재성 지부장
(강원 원주 김)

김중구 지부장
(강원 안동)

양상훈 지부장
(충남 논산)

이동혁 지부장
(경기 남양주)

김민철 지부장
(전남 강진군)